

우리에게 일본은 무엇인가

이타적 유전자

박재항

한림대학교
글로벌학부 겸임교수



‘오직 국익을 위한 외교하겠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교통량 많은 사거리에 걸어 놓은 플래카드의 문구를 보았다. 무역 규제, 지소미아, 강제 위안부와 징용자에 대한 배상 등 일본과의 외교 문제를 그가 속한 당에서 풀어 가는 방향이라며 쓴 문구인데,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국익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우리 국가의 이익이 다른 국가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인지, ‘오직’이란 절기 찬 수식까지 붙여 여러 갈래 국익의 가설적 정의들이 머리를 맴돌았다.

일본을 빼고 이 땅에서 3월을 얘기할 수는 없다. 국익이라는 외침이 커진 올해의 3월은 예전의 3월과 다르다. 봄이 왔으나 봄 같지 않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과 같이, 뭔가 어색한 3월을 보내며, 100여년 전의 뜨거웠던 함성이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 함성 대신 국익이라는 게 오는 걸까. 일본 측에 불편한 소리는 하지 않고, 그리하여 양국 간의 경제 거래를 늘리고, 수익을 올리면 국익이 되는 걸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점기 일제 당국이 가장 위협하고 폭력적인 본자로 지목했던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국익에 역행하는 인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익의 정의가 플래카드에 있는 것과 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았다. 김구 선생의 널리



29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589차 정기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시스

알려진 글을, 국익 정의 차원에서 다시 읽어 봤다.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글이다.

‘나는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強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우리 건국이념과도 연결이 되는 김구 선생의 꿈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드라마와 음악, 웹툰 만화 등 다양한 부문의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들을 즐기며 행복해 하는 이들이 세계 각국에 존재한다. 약간

낮 뜨겁기는 하지만 ‘K-Culture’라고 스스로 명명하며 자부심을 갖는 한국인들이 많다. 그런데 문화의 성과를 사람들을 열만큼 행복하게 했는가 아닌 사용자와 판매액 등의 숫자로만 따지는 이들이 있다. 우리를 풍족히 하는 이상의 수입을 울리려 하고, 어떡하든 점유율이나 순위를 매기며, 경쟁으로 몰아 넣는다. 작년 전세계 최대 판매 앨범 상위 10개 중 8개가 K-팝이라고 한다. 판매액이나 수익 금액보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즐겼고, 행복해했다는 자체가 뿌듯하다. 고대 중국의 역사서에 우리 조상을 두고 ‘가무를 즐기는 민족’이라고 했으며, 한류 문화의 뿌리 운운하는데, 돈을 벌려고 그렇게 즐겼다는 얘기는 없다. 순수한 즐거움, 다른 이들도 함께 행복하자는 마음이 원동력이었다. 다만 즐기자는 데서 국경을 넘어선 히트곡은 나오지 않는다. 자칫 애국심은 배타적인 경향을 띠기 쉽다. 너무 강조가 되면

자국 내로 영역이 한정되면서 내부에서의 소모적인 경쟁을 일으킨다. 극심한 내부 경쟁은 외부의 힘을 빌리는 길을 택하게 만든다.

네델란드 출신의 역사학자이자 언론인인 이안 브루마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사를 기술한 저서에서 큰 나라를 섬긴다는 한국의 ‘사대(事大)’가 근대에 와서 ‘상대 라이벌을 이길 수 있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외세에도 굽신거린다는 의미가 되었다’고 우리로서는 부끄럽고 뼈 아픈 언급을 했다. 국가가 잘되어야 한다는 데서, 나만 벌일 없으면 된다는 식의 우리 자신을 갉아먹는 이런 사대의 시대는 끝내야 한다. 일본과 비교하며 사대가 한국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들도 이전 세대에서 많이 보았다. 고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일본의 양공주들은 몸을 팔더라도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일본의 완전한 독립’이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초콜릿이나 더 달라고 하고 있었던 말야.’

너무 자기비하하지 말고, 상대를 지나치게 격상시키지도 말고, 한국을 넘어 인류 공통의 문제를 건드려야 한다. 한국이 현대 역사에서 세계적으로 전통과 권위를 인정받는 부분이 있다. 불의에 저항하며 싸움에 참여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민주 시민의 역량이다. 한국에 대해 좀 냉소적인 시각을 지녔던 미국 친구 하나는 지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당시의 대통령 탄핵 판결이 나온 직후에 ‘한국 민주주의의 기반은 정말 강하군’이라며 부러움과 찬탄을 담은 메일을 보냈다. 특히 1980년의 광주는 독재와 억압에 저항하

여 싸우며,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전세계 사람들의 ‘빛’이고 ‘영광’이고 ‘아름’이며, ‘영원한 청춘의 도시’의 상징이자 굳게 뭉쳐 일어서는 십자가가 되었다.

다수의 행복과 즐거움을 지향하는 한국 문화와 불의에 저항해 일어서는 시민 투쟁의 대표 결합체가 바로 1980년 광주가 낳은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원곡 그대로의 춤과 노래로 소화되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노래와는 달리 임을 위한 행진곡은 그 나라의 언어로, 싸우는 상황과 맞게 번안되어 투쟁의 현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한다.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가장 많은 나라에서 불려지는 한국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어느 나라에서도 감히 쫓아올 수 없는 한국을 세계에 아로새긴 브랜드 산물이다.

저항의 문화, 투쟁의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며, 그와 결부된 모든 것에 거부감을 갖는 이들이 있다. 기존 질서에 조금이라도 균열을 내면 질책을 하고 국익에 어긋난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다른 이들이 굶어 죽더라도 그 기회를 이용하여 돈을 벌어야 하고, 방어 이상으로 선제 타격을 가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공격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이들의 기저에는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다. 앞서서 나가지 못하고 불안함에 나보다 강해 보이는 이들의 뒤를 쫓는다.

시련과 실망의 3월을 보내며 다시 주문처럼 5월의 노래를 당겨서 불러 본다.

‘지금 우리들은 확실히 굳게 뭉쳐있다/ 확실히 굳게 손잡고 일어서다’.

여기에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한국의 자랑스런 브랜드가, 문화가, 힘이 있다.

선제적·창의적 정책 추진으로 민생경제 살려야

기고

김태군

전남도의회 부의장



기나긴 3고(高)의 시대에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옆친데 댕친격으로 실리콘밸리 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의 파산으로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세계적인 은행의 연이은 파산에 대한 각국 정부의 긴급조치로 당장 급한 불을 끈 것처럼 보이지만 불안정한 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불안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물가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약자복지 확충, 고용안정,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크게 5개 방향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가계경제를 위한 소비진작 및 물가관리, 지역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산업 및 일자리 지원, 지역사회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농수축산물 가격안정 및 농어가 경영지원 등의 정책으로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남도에서도 소비진작 및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지역화폐 유지 발행,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 등의 정책이 시행 중이며 지역사회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수급 안정화,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및 판로강화, 돌봄활동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의 민생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민생경제가 당장 살아나기는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지금이 시점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남만의 과감하고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온 정책만으로는 현재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을 떠나는 청년을 붙잡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한다. 가칭 ‘청년일자리 만들기 특공대’와 같은 청년일자리·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집중해서 추진하고 시장이나 거리의 일부만 청년창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기보다 특정 구역 전체를 ‘청년일자리 전용특구(특화구역)’로 지정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등 과감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두 번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구축이 시급하다. 민생경제가 살아나기 위해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전남도의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일자리를 만드는 성격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사업을 집중력 있게 추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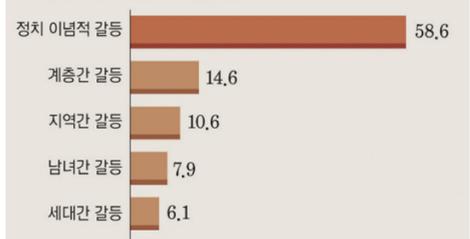
가 어렵고, 일자리의 양은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자리의 질은 높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일자리 사업을 한곳으로 모으고 밀도 있는 추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일자리 컨트롤 타워’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이 동반될 때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세 번째, 강한 소상공인의 육성이 필요하다. 민생경제의 근간은 소상공인이다. 전남도를 비롯해 각 지자체, 기관 등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이차보전, 저금리 대환대출, 대출기한 연장 등 다양한 금융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경기 불황에도 버틸 수 있는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해야 한다.

2023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은 각 연구소나 기관에서 전망하는 수치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불황의 터널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헤아릴 수 없을만큼 깊어지고 있다. 전남도의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이 시급하다. 민생경제는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갈등 요인



* 뉴스시스 의뢰 3월 25일~2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 (응답률 1.5%) 자동응답조사(ARS, 무선 100%, ±3.1%p (95% 신뢰수준))

자료: 국민조사연구소, 에이스리서치

오토바이 헬멧 착용은 선택 아닌 필수

독자투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20%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반면에 오토바이의 경우는 사고 시 약 80%가 부상 혹은 사망했다는 결과가 있다.

이같이 위험한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날씨나 따듯해지는 봄철에서 여름철에 집중되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는 활동이 필요한 때다. 최근 오토바이 교통사고 중 운전자 부상 정도가 중상 이상인 사고의 대다수는 안전 장구인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 헬멧은 주행 중 날아오는 위험물과 충돌 등의 사고 시 충격으로부터 운전자의 머리를 보호하는 필수 안전 장비다. 오토바이 운전용 보호장비는 장갑, 부츠, 척추 보호대 등 다양하지만 법으로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헬멧밖에 없음을

봐도 오토바이 헬멧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오토바이의 높은 교통사고율은 주로 헬멧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토바이 사고 시 머리카락 부분의 부상이 제일 많은데 머리카락의 부상은 치명적이다. 이러한 머리카락 부분의 부상을 예방하거나 심각도를 덜기 위해서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경찰의 집중적인 헬멧 미착용 단속(도로교통법 제50조3항, 범칙금 2만원)이 있을 때면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을 보면 헬멧 등 안전 장구의 착용은 생명과 직결된다고도 볼 수 있다.

헬멧은 인가된 디자인의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운전자의 시력과 청력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하며 헬멧의 턱끈도 확실히 매야 한다. 또한 뒷좌석에 탄 사람도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동승자를 지킬 수 있다.

김대원 (남부경찰 교통안전계 경사)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

全南日報